

## 구 가와카미 가문 주택(에구치 단고 셋타야점)

구 가와카미 가문 주택은 셋타야 지구의 귀중한 역사를 전하는 건물로서, 2022년에 나가오카를 거점으로 하는 인기 과자점 '에구치 단고'의 매장으로 새 단장되었습니다. 가와카미 가문은 셋타야 지구에서 1831년부터 간장 양조를 해온 고시노무라사키의 창업자 가문입니다.



원래 이 저택은 고시노무라사키 간장 양조장과 같은 부지 내에 1916년에 지어졌습니다. 2004년 주에쓰 지진으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당시의 건축 자재를 사용해 일부를 재건하였습니다. 옛 저택은 손님이나 직장 동료를 접대하기 위한 주택에 걸맞게, 수수하면서도 기품과 고급스러움을 어우러진 디자인과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건축에는 고가의 느티나무 목재가 사용되었으며, 실내는 가레산스이(枯山水, 전통적인 일본 정원 중 하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 정원으로 설계됨) 정원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매장 내 카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응접실에는 엄선된 미술품을 장식하기 위한 큰 도쿄노마(일본식 방 한쪽에 마련된 마루 부분. 현재는 주로 꽃이나 족자 등을 장식하는 공간으로 이용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에구치 단고 셋타야점으로 새단장하면서 옛 저택의 다다미를 단단한 나무 바닥재로 교체하고, 도쿄노마에 고마(작은 방)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정원을 바라보는 좌석과 제과용 주방도 정비되며, 일련의 개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옷장과 책상, 조명 기구, 커다란 반죽 그릇 등 과거 저택에 있던 다양한 가구와 장식품들이 현재는 매장 내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느티나무 목재 복도와 조각이 새겨진 란마(일본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 중 하나. 천장과 상인방<맹장지 등을 넣는 틀> 사이에 만들어진 개구부를 말하며, 바람이나 빛이 통과하도록 설치된 것) 등 원래 저택의 건축적 특징들도 다수 보존되어 있습니다. 맞배지붕이 없던 입구 상단부에는 '가와카미(川上)'라는 글자가 새겨진 나무 조각 장식이 있고, 마차나 인력거 승하차에 편리한 원형 포석 등이 남아 있어 외관에서도 옛 저택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에구치 단고 셋타야점

주식회사 에구치 단고는 역사가 있는 가와카미 저택을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활기찬 장소로 만들기 위해 셋타야점을 열었습니다. 전통적인 것부터 독창적인 것까지 다양한 과자를 판매하고 있으며, 명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사사단고입니다(썩넨 썩 경단에 달콤한 팔소가 들어 있으며, 대나무 잎에 싸여 있습니다).



셋타야점은 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발효, 양조 재료 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 명물인 일본술, 사프란주, 간장, 된장, 술지게미를 사용한 과자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며, 미타라시 단고(달콤한 간장 양념이 발린 꼬치 형태의 쌀가루 경단), 만주(속에 팔소가 가득 들어 있는 묵직하고 달콤한 빵),

도라야키(2장의 폭신한 팬케이크 사이에 달콤한 팔소를 넣은 과자) 등이 있습니다. 바로 조리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갓 만든 경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카페 코너에서는 일반적인 메뉴 외에도 술지게미를 무료로 사용해 키운 차, 채소 누룩 절임, 아이스크림, 계절 디저트 등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카페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라스트 오더 오후 5시)

시연 판매: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휴업일: 화요일